

2018

제11호

발간년월 2018년 11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하동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1-797-4726)

강원도는 수도권을 배후로 당일형, 주말형, 하계 휴가철 관광목적지로 높은 선호도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 해수욕장의 35%가 위치한 강원도는 2016년 제2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릉선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해양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권 해양관광의 활동 유형 및 수용태세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6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관광객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평균 이동총량 성장률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 동해안 관광 시장의 성장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강원권 해양레저관광 활동자는 2020년 2,657만 명, 2022년 3,066만 명 수준으로 2017년 2,258만 명에 비해 연평균 7.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TX 강릉선이 해양관광활동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난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강원권 해양레저관광 활동자 증가 추세를 전망할 수 있다.

해양관광 활동 유형별로는 전통적으로 강원도 해양관광의 주를 이루는 해변 경관감상, 해수욕, 해변휴식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5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동적인 해양레저 활동인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견인형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서핑 등에 대한 참여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강원권은 해수욕장 자원이 매우 풍부하나 그 외 해양문화자원이나 어촌체험,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편으로, 바다라는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도 해양관광객 조사 결과에서도 해양관광지 경관, 치안 및 안전, 연계 관광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도내 교통, 관광정보 및 안내, 물가, 혼잡도, 체험프

---

로그램, 종사자 친절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릉선 KTX 개통을 강원권 해양관광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용력 증대만을 고려한 대단위 시설개발이나 운영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유형별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해양관광 유형별 활성화에 있어서 향후 활동적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강원도가 스킨스쿠버,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기반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해수욕장은 하계 휴가철 집중 이용 패턴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상적인 친수공간으로 변화시켜 이용수요의 다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동해안 해양 관광객의 KTX 강릉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버스를 개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활성화와 함께 렌터카 서비스 개선 및 확대 방안을 통하여 해양관광지 교통수단 불편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첨단 ICT 서비스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바다해설사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숙박 및 식음료업의 경우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하계 휴가철 혼잡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해양관광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과 연계하여 부산권과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성장

### ■ 국내 대표 해양관광목적지인 해수욕장은 교통여건이 우수한 10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집중 및 지역편중이 강화

- 2017년 해수욕장 방문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해수욕장 중 6개소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부산과 충남 지역에 위치함
- 전국 상위 10대 해수욕장에 포함된 강원 지역 해수욕장(경포, 낙산, 속초, 망산) 방문객 수는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 수의 14.7%를 차지하며 향후 교통여건 개선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광역 교통망 개선으로 강원권 해양관광시장 급격한 성장 전망

### ■ 강원권 해양관광시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관광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

- 광역 교통망 개통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 간은 90분대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강원도 내 고속교통망 개선으로 30분 이내 접근 가능 지역의 비중이 기존 63% 수준에서 82%까지 상승함
- 이를 계기로 강원권 해양관광 수용태세를 평가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강원권 해양관광은 수도권을 주요 배후시장으로 성장

### ■ 강원권 해양관광은 수도권을 주요 배후시장으로 하며 해수욕장, 경관감상 등 전통적인 해양관광과 스킨스쿠버,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성장

- 강원도의 1일 여객 총 통행량은 유입량 기준 260만 통행이며, 이 중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 동해안 6개 시군의 방문객 수는 2015년 기준 전체 강원도 방문객의 54.5%인 5,541만 명 규모이며, 이 중 속초시(25%), 강릉시(21.6%), 양양군(20.5%)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이동총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여행객은 4,629만 명으로 강원권 해양레저관광객은 약 2,52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됨

- 강원도 해수욕장 이용객은 2,258만 명으로 전국 이용객 대비 14.7%이며, 경포대 해수욕장은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해운대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어 혼잡도가 매우 높은 편임
- 강원도 6개 시군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2017년 기준 1,411만 명으로 속초가 476만 명, 강릉시 331만 명, 양양군 221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국 해양관광 대비 강원 지역 해양관광 활동은 해양레저스포츠 경험이 높은 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의 ‘해양관광-레저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강원도 해안지역 방문객의 해양관광 활동별 경험률을 전국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견인형 수상레저기구, 스낵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경험률이 높음
- 강원도 해안지역 방문객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관광문화, 해양 레크리에이션 장비 및 여행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이들 항목이 전국 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보임

## ■ 강릉선 KTX 이용경험이 32.8%, 서울-양양고속도로 이용경험이 53.6%

- 강원권 해양관광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바닷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렌트포함)이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속/시외버스 61.4%, 강릉선 KTX가 51.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로를 이용한 관광 비중이 높음

## ■ 지난 1년간 강원도 내 해양관광/레크리에이션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 해안 경관 감상이 73.6%를 차지

- 해수욕/해변휴식이 61.4%, 해산물 구매/시식(57.7%), 해안길 도보(55.7%), 해변/해안축제 참가(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관광/레크리에이션 활동별 만족도는 해안 경관감상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해양 카약/카누가 4.05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강원도 해양관광 수용태세에 대한 여건별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해양관광지 물가와 혼잡도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

- 해양관광지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안관광지 치안 및 안전이 3.52점으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함
- 강원도 해양관광객은 인프라(관광시설, 교통 등)에 대한 만족도가 소프트웨어(혼잡도, 물가, 체험프로그램 등)나 휴먼웨어(종사자 친절성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원권 해양관광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을 공급

### ■ 강원권은 해수욕장 자원 공급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바다라는 자연자원에 대하여 1차적이면서도 단순한 이용 위주임을 의미

- 강원권에서는 인천, 부산 등에 비해 도시 중심의 종합적인 해양관광자원 이용현상이 뚜렷하지 못한 상황임
- 전국에 운영 중인 마리나는 34곳이며, 이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3개소가 있음
  - 레저선박의 증가와 조종면허 취득자 수의 증가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강원도 마리나의 공급능력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함
-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78개의 수중레저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 대비 21.2%로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음
- 어촌체험마을은 전국 연안지역에 1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강원도 지역에는 9개소가 운영 중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여 적은 수준임

### ■ 강원권 동해안에는 관광 권역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유명 해변이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 전국관광단지 지정을 토대로 관광단지를 기준으로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15개의 관광단지 중 동해안권에는 3개가 있어 전체의 20%를 차지함
- 지정관광지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43개의 지정관광지 중 동해안권에 위치한 관광지는 총 18개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강원권 해양관광 수요는 향후 5년 이내 35.7% 증가 전망

### ■ 향후 5년 이내 강원권 해양레저관광 활동자는 3,066만 명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7.1% 성장

-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6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관광객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5.8%씩 증가함
  - 동기간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평균 이동총량 성장률은 4.5% 수준임

- 향후 3년 내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동자는 약 2,657만 명, 향후 5년 내 3,066만 명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7.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강원도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향후 1년 내 방문의향은 속초시 78.4%, 강릉시 7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2개의 시에 대한 방문의향이 높음
  - 지역별 향후 3년, 5년 중장기 방문의향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는 형태로 나타남

## ■ 향후 1년 내 참여하고 싶은 해양관광 유형은 해안경관 감상, 해안길 걷기, 해수욕/해변 휴식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참여의향의 변화에서 크루즈/유람선 여행 참여의향이 향후 1년과 향후 5년 내를 비교해봤을 때, 5년 내 의향이 52.1% 이상 높아져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참여의향은 39.6% 증가, 견인형 수상레저기구 참여의향이 36.9%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참여의향이 매우 높게 증가함

## ■ 향후 강원도 해양관광 시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91.8%

- 향후 이용 예정인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91.8%, 강릉선 KTX가 75.8%, 고속/시외버스가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강원도 해안지역 내에서 주로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76.7%로 우월하게 높음
  - 결과적으로 강원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자가용, 강릉선 KTX, 고속/시외버스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해양관광 목적을 위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강릉선 KTX 개통으로 인한 강원도 해양관광 의향에 대한 영향력은 28%, 서울-양양고속도로는 29.5%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도로에 대한 의존이 높는데 원인이 있음
- 이는 해양관광 목적지로의 접근방식에 있어 자가용 이용이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양관광 유형별 활성화 유도과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강원도의 해양관광정책 방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동해안권 접근성 개선과 해양관광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강원도 연안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권 해양관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망된 해양관광 행태변화를 고려하여 유형별 발전방안 마련과 해양관광과 수용태세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함

### ■ 해양레저스포츠 거점 마련을 통하여 수도권의 해양레저스포츠 목적지로 육성

-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의 조성은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해양레저체험 및 교육공간의 조성,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개선으로 분리하여 추진함
  - 해양레저체험 및 교육공간의 조성은 레저선박과 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체험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함
  - 마리나항만의 이용기능 개선,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레저장비보관/임대 시설 설치와 함께 특정 레저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레저활동 편의성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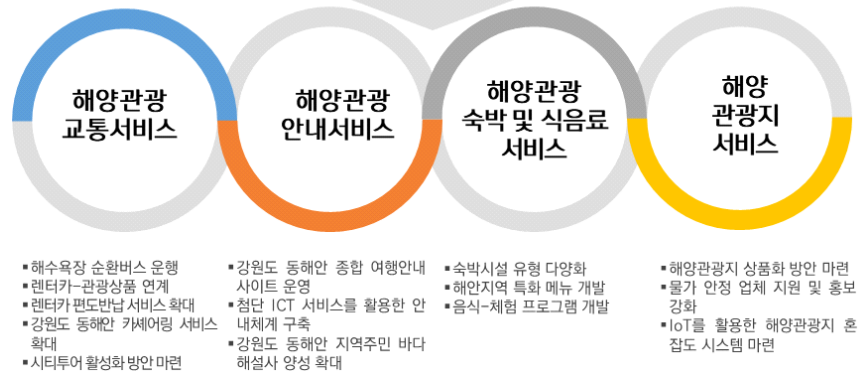
### ■ 해수욕 중심의 해양관광활동에서 벗어나 해수욕장을 지역의 친수공간으로 변화시켜 이용 수요의 다변화를 유도

- 해수욕장 및 해변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산책로를 정비하고 주요 해수욕장마다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으로 변화시키도록 함
- 비수기 해수욕장 공간을 공연 및 공공미술 설치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의 경관감상 요소로 활용하도록 함

### ■ 강원권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은 해양관광 안내, 해양관광 교통, 해양관광 숙박 및 식음료, 해양관광지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수용태세별 개선방안을 제시

그림 1. 강원권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 강원권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



자료: 저자 작성

## ■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활성화와 함께 렌터카 서비스 개선 및 확대방안 도모

- 단기적으로는 동해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동해안 블루 비치 순환버스(가칭)’를 운행함
  -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활성화 등 주요 관광지와 해양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지역의 렌터카 업체와 관광업체의 할인 서비스 및 편도반납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동해안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여행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함

## ■ 첨단 ICT 서비스를 활용한 안내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바다해설사를 양성

- 지역소멸,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 등에 따라 첨단 ICT 서비스를 활용한 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 바다해설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은 질적 서비스 개선에 초점

- 기존 정형화된 숙박시설 뿐 아니라 야영, 캠핑, 게스트하우스, 어촌체험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민박 등 유형의 다양화가 요구됨
- 강릉의 카페거리와 같이 지역 식문화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역의 식문화연구소와 협력을 통하여 식문화를 분석하고 스토리를 부여하여 마을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메뉴 개발이 필요함
- 해양관광지에서의 음식은 하나의 문화체험 대상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음식문화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 ■ 해양관광 수용태세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해양관광지 물가 안정 및 혼잡도 개선 필요

- 해양관광지에서 유료화가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을 집적시키고 관광 상품화하여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물가 안정을 지향하는 음식점, 숙박업, 관광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나 해양관광레저시설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점검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여름 휴가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CCTV 등을 이용하여 해양관광지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용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해수욕장에 대한 쏠림 현상을 피할 수 있도록 분산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2018.10.13.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8.10.18.
제5호	자율운항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	2018.10.18.
제6호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제를 중심으로-	2018.10.25.
제7호	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관행 개선	2018.10.25.
제8호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8.11.01.
제9호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2018.11.01.

URL: <https://www.kmi.re.kr/>